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6.8.17~2016.8.2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틱낫한기도의힘	틱낫한	불광출판사	6	지장기도(손으로쓰고마음으로그리는)	지원스님	민족사
2	불교입문-도표로읽는	이자랑	민족사	7	스님의 비밀	자현/석공	(주)조계종출판사
3	어떻게 살 것인가(설정스님의인생법문)	설정/박원자	나무를심는사람들	8	스님의 첫마음	박원자	뜨란
4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9	날마다 새날-불교 명절에 담긴 수행이야기	법륜	정토
5	알기쉬운 쏙쏙 능엄경	현담스님	도서출판선	10	짧지만큰가르침(성철스님의)	원택엮음	장경각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조주 어록, 참된 길 일러줄 교과서"



조주어록 석의 (上, 下)

장산 지음
조계종출판사 펴냄
상 하 세트 5만원

"승가의 근본은 '두타승'이다. 버리고 버리고 또 버리며 탁발 받고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조주 선사의 어록을 보면 이 시대 한국불교가 지녀야 할 경책이 보인다. 불교 수행의 근본을 일깨우고 참된 수행 정신을 일러주는 조주 선사의 가르침을 살펴보았다"

부산 세존사 회주 장산 스님〈오른쪽 사진〉이 〈조주어록 석의〉를 펴냈다. 스님은 "조주 선사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어록을 통해 수행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조주 선사의 삶이 이 시대 한국 불교의 답이 될 것이다"고 출간 취지를 설명했다.

조주 종심(趙州從諗, 778~897) 선사는 당(唐)나라 말 혼돈의 시대에 육조 혜능이 펼친 남종선(南宗禪)을 크게 일으켜 한 시대를 풍미했다. 하지만 120세에 입적 전 까지 조주 선사의 일생은 단순함 그 자체였다. 조주 선사는 14세 가량에 남존 보원(南泉 普願) 화상을 만나 제자가 된다. 그 후 스승 남전 화상을 옆에서 시봉했다. 스승이 입적했을 때 조주 선사의 나이가 57세 였으며, 그 후 3년 간 상을 치러 탈상 했을 때는 60세였다. 이때에 '회창의 법난'을 피해 산속에 숨어 살다 법난이 끝났을 때가 70세 였으며, 그 후 10년 동안 행각을 이어 간다. 이 때 조주 선사가 지닌 것은 한 개의 물병과 석장 뿐이었다. 80세가 됐을 때 관음원 주지가 됐지만 너무나 가난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단 한번도 신도들에게 가난한 절의 사정을 살펴 달라 호소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장산 스님은 "조주 스님 어록을 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참 불교를 보았고 진실을 보았다. 조주 스님의 삶처럼 어록의 언구도 하나하나가 평범하고 일상적이며 단순하다. 하지만 날카롭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조주 스님 어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는 '정전백수자(庭前栢樹子)' '뜰 앞의 잣나무'가 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서 오신 뜻입니까?'라는 물음에 조주 스님이 답한 첫 구이다. 실제 관음원에 가보면 뜰 앞에 있는 것은 지빵나무이다. 문제의 요점은 '무엇이 있는가?'가 아니라 '왜 그 잣나무가 거기 있는가?'에 있다. 모든 것이 시절인연 바로 연기법"이라고 말했다.

저자는 일상에서 흔히 보고 행하는 것으로 연기를 설명하는 힘은 바로 수행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실상을 깨닫는 수행의 삶이 바탕이 돼야 조주 선사의 어록을 이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교는 수행을 근본으로 삼아야
조주 선사의 단순한 삶 배워야
현토, 석의 등 폭넓은 선어록 담아

장산 스님의 〈조주어록 석의〉은 〈고존숙어록〉에 실려 있는 〈조주어록〉을 저본으로 삼아 원문에 현토를 달아 번역하고, 석의(釋義)를 달아 이해를 높였다. 또한 저자 장산 스님의 선불교와 〈벽암록〉 〈경덕전등록〉 〈임제록〉 등의 선어록, 경론(經論)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읽기 편하게 담아 더욱 특별하다.

장산 스님은 "임제 가풍을 잇는 한국 불교지만 법문서 주조 선사의 어록은 많이 등장 한다. 그 만큼 중요하지만 현재 어록에 대한 설명이 다양하지 않다"며 "교과서적인 책을 펴내 학인과 불자들 누구나 읽어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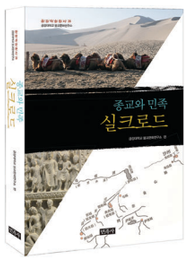
한편 장산 스님은 1963년 해인사로 출가했다. 해인사 고암 스님을 은사로 모셨으며, 1969년 해인강원, 1976년에는 동국대 불교대학 승가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85년에는 호주 시드니에 불광사를 설립했고, 기장에 대자원, 부산 세존사를 창건했다. 2013년에는 부산서 설악산까지 53일간 왕복 1,300km 걷기 수행도 진행해 큰 관심을 끌었다. 대한불교조계종 초심호계위원, 법규위원, 교육원 역경위원장, 동명불원 주지, 대각사 주지와 재단법인 대각회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화엄경 100일 법문〉 〈걷는 곳마다 마음 꽃이 피었네〉 〈자비(慈悲) 멀리서 가까이에서〉 〈고암 법어록〉 등을 비롯해 다수의 역서가 있다.

하성미 기자

학자들이 재조명한 고대 실크로드

종교와 민족, 실크로드

금강대 불문연 지음 | 민족사 펴냄 | 3만 2천원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동서 문화교류의 장(場)인 고대의 실크로드(Silk Road)가 현대 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가장 이슈화하는 교류의 장으로 급부상 중이다. 실크로드를 향한 현대 사회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고대 실크로드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 진다.

하지만 고대 실크로드는 이미 붓다루트(Buddha Route) 또는 다르마로드(Dharma Road)라는 별칭을 붙일 정도로 불교와 밀접한 길이며, 그런 만큼 실크로드에 대한 불교학계의 관심은 이미 진작돼 있다. 돈황 사본에 대한 연구 활동을 비롯해 초기 중국불교와 인도불교사의 연장선에서 접근하는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한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 연구사업단은 불교학적 접근부터 사회 정치 문화적 접근까지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성과를 이루기 위해 중국서부변강연구원과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실크로드에 대한 공동조사와 연구를 진행했다. 1여 년 공동 연구를 통해 2014년에 '종교와 역사의 교차점, 실크로드'라는 주제로 제1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015년 3월에는 '종교와 민족, 실크로드'라는 대주제로 제2회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학술대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파키스탄 등 5개국서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학자가 참여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주로 실크로드 상에 존재한 민족과 종교, 그리고 그 속에서 파생된 문화, 고고학적 성과와 발견된 문헌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발표됐다. 새로운 자료가 제공되기도 했고, 국내에서는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소개가 이뤄지는 연구 성과도 있어 실크로드에 대해 좀 더 폭넓게 이뤄졌다. 또한 참여한 연구자 수가 19명에 이르기 때문에 실크로드상의 종교와 민족에 관한 내용을 총망라하는 계기가 됐다.

이 책은 제2회 학술대회서 발표된 글을 모았다. 학술대회를 기획한 입장서 총 19편의 발표논문을 접근 방식에 따라 '실크로드와 종교' '실크로드와 민족' '실크로드와 문화' '실크로드와 고고 문헌'이라는 4개의 주제로 재편집했다.

제1부 '실크로드와 종교'에서는 실크로드상서 검토할 수 있는 종교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다. 중국서부변강연구원장인 왕신(王欣) 교수는 중국서 불교가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실크로드 내의 불교와 흐름, 그리고 중국으로 전해지는 경로를 소개했다. 중국서부변강연구원의 한종이 교수는 우전(호탄, Khotan)에 불교가 전해지는 과정부터 발전사에 이르기까지 티벳문헌과 중국문헌을 바탕으로 소개하고 있다. 금강대 불문연 한지연 HK교수는 실크로드의 고대 경제권을 고려하면서 대승불교가 본격적으로 집단화되는 과정에 중국이라는 요소가 있고, 일방적인 동전(東傳)이 아닌 쌍방향 교류를 주장했다.

제2부 '실크로드와 민족'에서는 실크로드상의 여러 민족과 그들의 활동, 종교적 신

1년여 공동연구… 19명 학자 참여
제2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 모아
실크로드와 종교 등 4주제로 편집

앙 형태 등을 주로 다룬다. 중국서부변강연구원의 한샹 교수는 실크로드에 존재한 여러 민족이 당나라에 들어왔을 때의 변화 모습을 다루는데, 그들의 습속과 이름과 종교적 성향 등의 변용을 상세히 소개해 실크로드 민족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여준다. 중국서부변강연구원의 왕차오(王超) 연구원은 중국 신장성뿐 아니라 타지크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이란 등에 분포한 타지크 민족이 여러 종교에 미친 영향과 그들의 신앙에 관해 소개했다. 특히 불교, 조로아스터교, 이슬람뿐 아니라 마니교, 경교 등의 발전상과 함께 민족성을 고찰함으로써 다각도의 접근을 시도한 논문이라 할 수 있겠다. 중국서부변강연구원의 류홍 연구원은 고대와 중세에 치우쳐 연구된 실크로드에서 벗어나 청(淸)나라 시기에 발전된 민간신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제3부 '실크로드와 문화'에서는 민족과 종교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문화에 관한 소개가 이루어진다. 서북미술학원 리칭 교수는 누란에서 발견된 무덤에 대한 검토를 이루는데, 내부의 여러 유물들을 통해 실크로드상의 각 민족문화와 중국문화와의 결합과정 등을 논하였다. 서강대 동아연구소 강희정 HK교수는 돈황을 통해 잘 알려진 비천에 관해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의 여신과 비교함으로써 비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는 것과 동시에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의 세계화를 주장했다. 파키스탄 탁실라박물관 학예관인 나시르 칸(Nasir Khan)은 현재 탁실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을 비롯해 박물관이 소장하는 여러 불교 유물을 소개하면서 간다라 예술의 특징과 불교 유물의 특이점을 밝혔다.

제4부에서는 실크로드에서 출토된 고고학적 유물과 문헌을 중심으로 한 연구 성과를 모았다. 독일 괴팅겐학술원 정진일 교수는 동투르키스탄(新疆)에서 출토된 〈증일아함경〉 산스크리트 사본 단편을 소개했다. 금강대 불문연 차상엽 HK교수는 〈바셰(dBa' bzhed)〉와 돈황 출토 펠리오 티베트 사본 〈호탄불교사(Li yul chos kyi lorgyus)〉를 중심으로 호탄불교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 이는 제 1부의 한종이 교수 연구의 연구 성과와 연동하여 볼 수 있으며,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문헌을 통해 호탄불교에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 호탄불교 연구를 본격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논문이다. 탁실라 박물관장을 역임하고 현재 파키스탄의 콰이드 아이 아잠대학에 있는 아쉬라프 칸(Ashraf Khan) 교수는 탁실라 부근에 대한 고고학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루어내고 있는 학자이다. 논문에서도 역시 최근 발굴을 진행한 바달푸르(Badalpur) 사원에서 발견된 불교 유물을 소개하고 서북인도의 사원구조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불문연 측은 "이 책을 출간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연구자 숫자도 많고 연구 범위도 광범위하며, 각국의 언어가 한글로 번역되는 데에도 관련 전공자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출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래서 번역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시간 노력했으나 출간하는 이 시점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논문 한 편 한 편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실크로드에 대한 여러 관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측면에서는 학계에서 소중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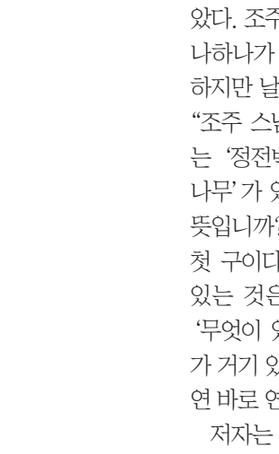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천지운명
건강 120세

여러분들의 건강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상담 환영



무령 엮음 | 신국대판 | 730 페이지
정가 150,000원

※ 스님 특별우대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효소(발효)담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아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또한 누구나 다 원하는 바 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은 온 국민이 건강을 지키시라는 큰 발심을 하여,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한방이라던지 민간 요법 효소담그는 법을 연구해 온 것을 이 책 속에 수록한 것입니다. 부디 '천지운명건강 120세' 책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가보로 자리매김 하기를 발원하며, 불자 온 국민 여러분들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1 어떠한 병이라도 민간요법으로 치유할수 있음을 사실 그대로 이 책자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
2 특히 기관지 천식, 심장병, 피부병에 관한 민간요법이 탁월합니다.
3 명절 선물용으로 최고로 실속있는 책자이며, 어느 집이고 꼭 필요한 민간요법서 입니다.

H·P 010-4496-6060 / 팩스 043)881-1359
입금계좌 : 농협 351-0862-7188-33 (예금주 : 천운사)

대원 문재현 선사님 78번째 서적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강맥을 한 몸에 받은



화엄경3권

화엄경 전자책 1권부터 5권까지 무료 공개!!

www.zenparadise.com 에 다운로드 방법 공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은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였다. 이러한 안목으로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 하신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불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 대원선사 토끼뿔 〉로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